

기쿠치 일족

기쿠치 일족은 일본 중세 시대에 규슈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한 세력이 강한 무사 집단입니다. 한때는 일본 전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일족의 본거지이자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인 와이후(현재 기쿠치시 중심부)에는 기쿠치 가문이 적대시하는 무장에 의해 멸망한 후, 수 세기에 걸친 지금도 500 년에 이르는 역사 유산이 질게 남아 있습니다.

기쿠치 가문은 어디에서 왔는가?

기쿠치 일족이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자세한 내용 대부분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1070 년에 성립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해에 규슈의 행정 중심지였던 다자이후(현재 후쿠오카현 중서부)에 부임했던 고위 관리, 노리타카가 현재의 기쿠치 지방에 도착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노리타카는 기쿠치라는 성을 사용했고, 이후 기쿠치 강이 되는 강가에 저택을 짓고,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인 와이후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외딴곳이었지만 기쿠치 지방은 벼농사가 왕성한 농업 지대였습니다. 노리타카와 그 자손들은 기쿠치 강에서 이뤄지는 교역을 독점했고, 주변의 평야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하여 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평야는 기쿠치 일족이 일본에서 손꼽히는 농지로 발전시켰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입장

노리타카의 시대에서 약 100 년 후인 12 세기 후반, 기쿠치 가문은 일본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쟁에 휘말립니다. 겐페이 전투(1180-1185)에서는 오랫동안 조정에서 패권을 다뤘은 무가인 헤이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이 천하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싸웠습니다. 일본 전국의 무가는 한쪽에 붙을 수밖에 없었기에 기쿠치 가문은 처음에 미나모토 가문을 지지했으나, 싸움의 최종 단계에서는 주로 규슈의 무사로 구성되어 곤경에 처해 있던 헤이 가문 군대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겐페이 전투에서는 미나모토 가문이 승리했으며, 미나모토 가문은 이후 일본 최초의 무가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설립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동일본에 근거지를 뒀으며, 같은 지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옛날에 적이었던 기쿠치 가문을 비롯한 규슈의 여러 가문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기쿠치 가문과 막부 사이의 불신이 길어져 13 세기 후반에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조선을 정복한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은 1274 년과 1281 년에 일본에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무사들은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해 파벌을 향한 충성심을 버리고 싸웠습니다. 기쿠치 가문도 막부를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싸워 몽골군을

내쫓는 데 공헌했습니다. 당시 영주였던 기쿠치 다케후사(1245-1285)는 전장에서 보여준 용맹한 모습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침략자에게 승리한 후 기쿠치 일족은 막부가 포상품으로 자신들에게 보답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각광을 받다

14 세기 초, 가마쿠라 막부의 지배력은 약해져 갑니다. 막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소비하는 한편, 지방의 무사와 조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조정과의 대립은 가장 큰 고난이 되어 닥쳐왔습니다. 고다이오 천황(1288-1339)이 조정에서 권력을 되찾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다이오 천황은 기쿠치 가문을 포함하여 막부에 불만을 지닌 무가와 동맹을 맺어, 1331 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333 년, 기쿠치 가문은 다른 규슈의 무사단과 함께 막부의 지부가 있는 하카타(현재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려던 그때, 기쿠치 일족은 동맹을 맺은 무사에게 배신당합니다. 대군을 이끄는 적에 비해 아군이 적어 죽음을 각오한 영주 기쿠치 다케토키(1292-1333)는 아들 다케시게(1307-1341)에게 기쿠치로 돌아가도록 명했고, 막부군에게 죽을 각오로 돌격했습니다.

다케토키와 그 부하들은 전사했지만 그들의 대의는 승리했습니다. 기쿠치 일족의 하카타 침공이 실패하고, 불과 몇 개월 후, 가마쿠라 막부는 고다이오 천황 측의 군대에 의해 멸망하여 막부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승리한 천황은 기쿠치 가문의 충성심에 보답하기 위해 다케시게를 히고국(현재 구마모토현) 수호(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지방관. 현재 현의 지사와 같은 것)로 임명했습니다. 기쿠치 가문은 이 명예 있는 직책을 약 200 년간 맡았습니다.

남조의 충신들

고다이오 천황이 조정의 직접 통치를 부활시키려고 들인 노력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다이오 천황의 개혁은 가마쿠라 시대 이전의 귀족 사회와 정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해당 정책으로 무사 계급의 대부분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진 후 불과 3 년 후인 1336 년, 옛날 가마쿠라 막부의 무장이자 고다이오 천황의 전우였던 아시카가 다카우지(1305-1358)가 교토를 점령했고, 새로운 무가 정관인 아시카가 막부를 창설했습니다.

다카우지는 자기 뜻대로 새로운 천황인 고묘 천황을 세웠고, 고다이오 천황은 수도에서 도망쳐 교토의 남쪽, 현재 나라와 가까운 요시노에서 대립하는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북조 시대(아시카가 다카우지 측이 북조, 고다이오 천황이 남조)가 시작되었으며, 대립하는 두 조정이 국가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기쿠치 가문은 규슈의 다른 많은 무가와 마찬가지로 남조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규슈의 지지자를 전국을 탈환할 수 있는 열쇠로 여기고, 어린 황태자 가네나가 친왕(懷良, ‘가네요시’라고도 읽음; 1329-1383)을 규슈에 파견했습니다. 파견의 목적은 기존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가네나가는 1348 년에 와이후에 도착하여 성주인 기쿠치 다케미쓰(1319-1373)와 대면했습니다. 이 만남이 기쿠치 가문 최대 번영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10 년간 가네나가와 다케미쓰는 규슈에 거점을 둔 무가와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여 규슈 전역에서 북조파를 물리쳤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유명한 지쿠고 강 전투(1359 년)에서 정점에 달했고, 기쿠치 가문은 북조 측의 대군을 결정적으로 무찔렀습니다. 이듬해 말까지 기쿠치 가문이 거느리는 남조 측 지지자는 규슈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동맹 본부는 다자이후로 옮겨졌습니다. 300 년 정도 전에 기쿠치 가문의 창설자인 노리타카가 기쿠치(구마모토현)로 여행을 떠나기 전 부임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 기쿠치 일족은 방어를 공고히 했으나, 남조의 요청이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승리한 규슈의 무사에게 요시노를 방문하도록 명한 것이었습니다. 기쿠치 다케미쓰가 이끄는 함대는 규슈에서 출범했으나, 북조군에게 요격당하여 퇴각했습니다. 다케미쓰는 다자이후로 돌아갔지만 아시카가 막부는 규슈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가로 유명한 이마가와 료순(1326-1420)을 새로운 장군으로 파견했습니다.

료순은 1372 년에 기쿠치 가문이 이끄는 남조군을 다자이후에서 추방했으며, 이듬해 다케미쓰의 죽음은 기쿠치 가문에게 더욱 타격을 주었습니다. 최강의 장군을 잃은 가네나가공이 이끄는 남조군은 규슈의 후미진 곳까지 몰렸습니다. 1383 년에 가네나가가 사망한 후 남조 측의 저항은 끝났으며, 기쿠치 가문은 다시 선조의 땅인 와이후 주변에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정치에서 눈을 돌려 문화 진흥을 이룩하다

1392 년, 고전을 면치 못하던 남조 측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아시카가 막부는 약해진 기쿠치 가문에 계속해서 히고국의 수호직을 맡겼으나, 일족의 정복과 영광의 시대는 끝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와이후 성주인 기쿠치 가문은 막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때는 일족의 영주가 히고국과 인접한 지쿠고국(현재 후쿠오카현 남부)의 수호로 임명될 정도로 막부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쿠치 일족은 정치적 야심보다 문화의 발전에 주목했습니다. 20 대 영주인 기쿠치 다메쿠니(1430-1488)와 아들인

시게토모(1449-1493)는 무사와 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이 지적·정신적인 부분을 탐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들의 지도하에 기쿠치는 불교와 유교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쇠퇴와 몰락

기쿠치 일족의 평화적 탐구는 일본 국내가 무사단의 대립으로 내란 상태에 빠지면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15 세기 후반에 아시카가 막부는 지방의 무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대두하면서 약해졌고, 지배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소규모지만 같은 움직임이 기쿠치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쿠치 가문을 섬겨 온 가신 일족이 주인을 쫓아내고 영주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1504 년, 해당 무사들은 기쿠치 가문의 영주를 없애고, 가로(가로란 다이묘<넓은 영지를 소유한 무사>를 섬기는 중신) 중 한 명을 영주로 임명했습니다. 1500 년대 중반에 기쿠치 가문은 남은 영토 라이벌인 오토모 가문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1554 년 마지막 영주였던 기쿠치 요시타케가 세상을 떠난 후 기쿠치 가문의 가계는 소멸했습니다.

재평가

1800 년대에 들어 현지의 역사와 과거의 영광을 향한 관심이 높아져 기쿠치 일족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상인과 영주 등 기쿠치에 사는 유복한 사람들이 일족과 관련이 있는 비석과 묘를 복원하고, 재건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일본 전국 규모로 기쿠치 일족의 공적이 재평가 받게 된 것은 1868 년 메이지 유신 이후였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천황이 정치적 지배권을 되찾았고, 약 7 세기에 걸친 무가의 지배가 끝났습니다. 메이지 천황(1852-1912)의 신정부는 14 세기 남조의 천황이 천황의 지위를 정당하게 지킨 자라고 판단하였고, 남조와 동맹을 맺은 핵심 세력인 기쿠치 일족은 새로운 체제에서 기대하는 군주를 향한 충성심의 본보기로 다뤄졌습니다. 기쿠치 가문의 주요 영주들(12 대 기쿠치 다케토키, 13 대 다케시게, 15 대 다케미쓰)은 와이후의 일족이 거주하던 성의 터에 새롭게 세워진 기쿠치 신사의 제신으로 모셔졌습니다.